

제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전통문화’에 대한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매듭 팔찌를 만들며 우리 전통 매듭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전통 매듭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통문화 연구소 누리집의 자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매듭을 생활 속에서 장식의 용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초상화 속 실내 장식에서도, 조선 시대 여성들이 사용하던 노리개의 장식에서도 매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통 매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 1을 제시하며) 먼저 이 자료를 보시죠. 옷을 여미는 부분에 매듭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연봉매듭입니다. 연봉은 연꽃 봉오리라는 뜻으로, 자료의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매듭의 생김새가 연봉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연꽃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만큼, 연봉매듭에는 자손의 번창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매듭은 보통 장식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이 매듭은 단추와 같은 역할을 하여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기에 단추매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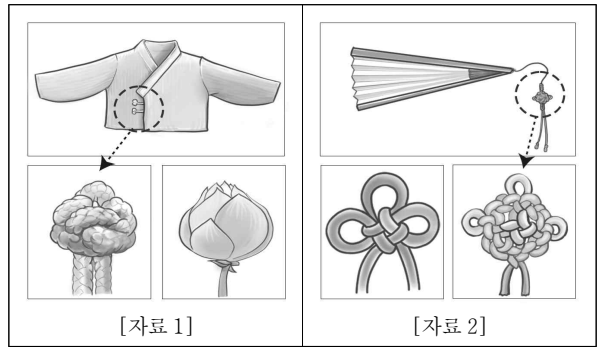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가지방석매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매듭은 주머니나 선추를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자료 2를 제시하며) 선추는 이렇게 부채의 고리나 자루에 매다는 장식품을 이르는 말입니다. 잠시 자료의 왼쪽 아래에 있는 매듭을 보시죠. 이 매듭의 이름은 생쪽매듭이에요. 작은 원이 세 개 있는 모양이 생강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생쪽매듭은 많은 매듭법의 기본이 되는데요, 가지방석매듭도 이 생쪽매듭을 중심으로 하여 원 모양으로 줄줄이 이어 나가 방석 모양처럼 크게 엮어 만든 매듭입니다. 그래서 이 매듭에는 좋은 일을 줄줄이 이어 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 열매가 잘 맺히는 가지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가지방석매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통 매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하며 주변을 살펴보니 팔찌뿐 아니라 다양한 장신구에도 전통 매듭이 활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전통 매듭의 의미를 떠올리며, 우리 주변의 전통 매듭에 관심을 가져 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③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발표 중간중간에 단어의 뜻을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봉매듭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연봉매듭이 단추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③ 가지방석매듭이 생쪽매듭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가지방석매듭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⑤ 좋은 일을 줄줄이 이어 간다는 의미가 담긴 가지방석매듭의 모양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2]를 활용하였다.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학생 1** : 매듭을 단추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느꼈어. 나도 매듭이 일상생활에서 응용된 다른 사례를 찾아봐야겠어.

**학생 2** : 나는 그동안 무언가를 묶거나 고정하는 데에만 매듭을 사용했는데, 다양한 물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학생 3** : 얼마 전 전통 매듭 전시회를 다녀왔었어. 그때 본 노리개에 둥근 모양의 매듭이 달려 있었는데, 가지방석매듭과는 다른 모양이었어. 무슨 매듭이었는지 궁금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에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며 발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4~7] (가)는 동아리 학생들이 나는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2'가 구청 누리집에 올린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지난번 논의에서 올해도 학교 축제 때 동아리 행사로 우리가 창작한 동화를 각색하여 소강당에서 공연하기로 했잖아. 오늘은 우리 동아리 행사에 마을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

**학생 2:** 지난해 축제 만족도 조사에서 마을 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어린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었어. 우리도 이번 동아리 행사에 그런 체험 활동을 추가하면 어떨까?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학생 2:** 이번 공연인 '아기 나무의 꿈'은 나무가 자라면서 바라본 우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잖아. 공연을 관람한 어린이들이 나무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건 어때?

**학생 3:** 그러자. 그런데 소강당에는 책상이 없잖아.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기가 불편할 것 같으니 장소를 바꿨으면 좋겠어.

**학생 2:** 공연 장소를 공용 교실로 옮기는 것은 어떨까? 거기는 공간이 넓어서 무대 설치도 가능하고,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에 편할 것 같아.

**학생 3:** 그거 괜찮겠다.

**학생 1:** 그러면 이번 우리 동아리 행사에서는 연극 공연과 그림 그리기 체험 활동을 하기로 하고, 장소는 공용 교실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지?

**학생 3:** 작년에 우리 학교 누리집에만 홍보했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구청 누리집의 '△△구 알리미'에도 우리 행사를 홍보했으면 좋겠어.

**학생 1:** 맞아. 요즘에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구청 누리집에 학교 행사를 많이 홍보하더라고.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홍보 글은 내가 써 볼게. 글에 작품명, 공연 일시, 장소와 같은 공연 정보가 포함되어야겠지? 그리고 마을 주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도 넣으면 좋겠어.

**학생 3:** 그러면 우리 동아리가 했던 활동 중 우리 마을과 관련된 활동을 소개하자.

**학생 1:** 그래. 그리고 마을과 관련된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번 공연 내용도 함께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

**학생 3:** 동아리 행사 신청 방법도 안내해야겠지?

**학생 2:** 응, 알았어. 신청 방법도 함께 정리해 볼게.

**학생 3:** 그래.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체험 활동과 어린이들에게 줄 책 선물에 대한 안내도 부탁해.

**학생 2:** 그렇게 할게. 다음 모임까지 초고를 작성해 볼게.

**학생 1:** 다음에는 함께 글을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나)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동화 창작 동아리 '꿈그리기'에서 연극 '아기 나무의 꿈'을 무대에 올립니다. 공연 일시는

[A]

[B]

10월 12일(목)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학교 공용 교실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 마을을 소재로 동화를 창작하고, 마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공연을 해 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 창작한 동화 '아기 나무의 꿈'을 각색한 것으로, 우리 마을의 보호수인 느티나무가 400년 전 처음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바라본 우리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롭게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나무'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연을 관람한 모든 어린이에게 저희 동아리에서 발간한 동화책 '아기 나무의 꿈'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가 신청 기간은 9월 11일(월)부터 9월 30일(토)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http://○○.hs.kr/>)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관람을 희망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논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환기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며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하고 있다.
  - ③ 자신이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 참가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 ④ 대화 참가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덧붙일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⑤ 다음 모임에서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며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5.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학생 2'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어린이 대상 체험 활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체험 활동을 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연 장소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2'는 공간적 특성을 근거로 들어 공용 교실 활용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기존 홍보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누리집 대신 '△△구 알리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B]에서 '학생 2'는 홍보하는 글에 들어갈 공연 정보를 나열하고, 마을 주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6. '학생 2'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에 대해 안내하기로 한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동아리에서 발간한 창작 동화 '아기 나무의 꿈'을 선물한다는 점을 알려 준다.
- ② 이번 공연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연 내용이 마을의 보호수인 느티나무와 그 나무가 바라본 우리 마을의 이야기임을 설명한다.
- ③ 이번에 추가된 체험 활동에 대해 안내하기로 한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그림 그리기 체험 활동으로 인해 공연 대상이 마을 어린이들로 정해졌다는 점을 알려 준다.
- ④ 동아리 행사 신청 방법을 안내하기로 한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 기간과 온라인 주소를 알려 주고, 어린이와 보호자의 정보를 신청서에 기입해야 함을 알려 준다.
- ⑤ 우리 동아리가 했던 활동 중 마을과 관련된 활동을 알려 주기로 한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그동안 마을을 소재로 동화를 창작하고, 매년 공연을 해 왔다는 점을 소개한다.

7. <보기>는 (나)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이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저희 동아리에서는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동아리에서도 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① 다른 동아리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행사의 의의를 추가하는 건 어때?
- ② 다른 동아리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행사의 일정을 추가하는 건 어때?
- ③ 다른 동아리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행사 참여에 대한 당부 말을 추가하는 건 어때?
- ④ 우리 동아리의 행사 준비 내용은 삭제하고, 행사의 의의를 추가하는 건 어때?
- ⑤ 우리 동아리의 행사 준비 내용은 삭제하고, 행사 참여에 대한 당부 말을 추가하는 건 어때?

[8~10] 다음은 교지에 실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사 먹는 과일과 채소는 품목별로 등급 규격의 항목 기준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농산물 등급 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런데 등급 규격의 항목이 주로 크기, 모양 등 농산물의 외관과 관련되어 있어, 맛이나 영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농산물이 등급 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러한 '등급 외 농산물'은 우리에게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등급 외로 분류된 농산물은 일반적인 유통 과정에 따라 거래되지 못한다. 잼, 주스 등으로 가공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에는 할값이라도 거래되지만, 가공이 어려운 품목들은 끝내 거래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만다. 등급 외 농산물은 맛과 영양, 가격 면에서 볼 때 소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유통 과정에서 소외되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등급 외 농산물이 판매되지 못할 경우 농산물 생산에 사용된 물, 비료, 노동력 등의 자원은 낭비가 되고, 폐기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 농가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등급 외 농산물은 환경 문제도 야기한다. 매립된 폐기 농산물은 썩는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메탄을 발생시키는데, 소비가 가능한 등급 외 농산물까지 불필요하게 폐기되어 이러한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등급 외 농산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급 외 농산물 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급 외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A]

8.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등급 외 농산물의 가공 가능 여부에 따른 처리 방식의 차이를 제시해야겠어. .... ㉠
- 등급 외 농산물의 구매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제시해야겠어. .... ㉡
- 농산물 등급 규격 항목과 관련지어 등급 외 농산물이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
- 등급 외 농산물 폐기로 인한 문제를 경제적 손해와 환경 문제의 측면에서 제시해야겠어. .... ㉣
-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등급 외 농산물을 일컫는 다른 명칭을 제시해야겠어.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등급 외 농산물' 구매 관련 소비자 설문 조사**

㉠-1. 구매 의사                                    ㉠-2. 구매 활성화 방안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		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	
재구매 의사 있음	95.5%	구매 의사 있음	65.3%
재구매 의사 없음	0.9%	구매 의사 없음	32.6%
기타	3.6%	기타	2.1%

기타 3.2%  
인식 개선 10.8%  
정부 지원 13.1%  
홍보 강화 17.3%  
구매 접근성 확보 55.6%

**㉡. 신문 기사**  
 애호박이 등급 규격의 항목 기준에 따라 특 등급을 받으려면 처음과 끝의 굵기가 비슷하고 구부러진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어린 애호박에 비닐을 씌워 상품성을 높인다. 맛과 무관하게 모양을 위해 매년 수익 개가 사용되는 이 비닐은 대부분 복합 플라스틱으로,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환경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 전문가 인터뷰**  
 “한 해 동안 등급 외로 판정되어 버려지는 농산물의 생산액은 약 3조 2천억 원이나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부담합니다. 소비자들이 등급 외 농산물을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 아깝게 버려지는 농산물이 줄어들 것입니다.”

10. 다음은 초고를 읽은 교지 편집부 학생의 초연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등급 외 농산물 소비가 농가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를 각각의 측면에서 밝히고, 등급 외 농산물 소비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어.”

- ① 등급 외 농산물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맛과 영양 면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등급 외 농산물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소비하려는 태도를 갖자.
- ② 등급 외 농산물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급 외 농산물의 가공 활용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 ③ 등급 외 농산물 소비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비자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등급 외 농산물 소비를 통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 보자.
- ④ 농가는 등급 외 농산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등급 외 농산물 소비에 동참해 보자.
- ⑤ 소비자는 맛과 영양을 갖춘 등급 외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농가는 등급 외 농산물의 생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등급 외 농산물의 판매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적는다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었다. 예를 들어 체연과 조사가 결합한 ‘잎이’, ‘잎만’을 발음대로 적으면 ‘이피’, ‘임만’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적힌 형태를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잎’이라는 본래 형태를 떠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형태를 ‘잎’으로 고정하여 적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먹어’, ‘먹는’처럼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구별하여 적는다. 즉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근과 접미사,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쓰일 때는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기도 하고 소리대로 적기도 한다.

- (㉠) 그는 웃음을 지으며 마감 시간을 확인했다.
- (㉡) 방에 들어간 그는 사라진 의자를 발견했다.

(㉠)에서 ‘웃음(웃-+-(으)’)은 접미사 ‘-(으)ㅁ’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다. 이와 달리 ‘마감(막-+-(으)ㅁ)’은 접미사 ‘-ㅁ’이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었다. (ㄴ)에서 '들어간'은 앞말인 '들어'에 '들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어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지만, '사라진'은 앞말이 본뜻에서 떨어져 그 의미가 유지되지 않아 소리대로 적었다.

[A] 한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는 어미 '-(으)ㄴ지, -(으)ㄴ지'의 일부일 때는 띄어 쓰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앞말과 띄어 쓴다. 또한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낼 때는 '한번'이라고 쓰지만, '번'이 일의 횟수를 나타낼 때는 '한 번', '두 번'처럼 띄어 쓴다.

11.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풀이 ㉠ 쓰러진 사이로 ㉡ 작은 꽃이 ㉢ 마중을 나왔다.  
◦ ㉣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 밑을 잃지 않았다.

- ① ㉠: 앞말이 '쓸다'라는 본뜻에서 떨어져서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 ② ㉡: 용언의 어간 '작-'과 어미 '-은'이 구별되도록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 ③ ㉢: 접미사 '-음'이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일부 어근에만 결합해서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 ④ ㉣: '끝'이라는 체언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 ⑤ ㉣: 어근에 접미사 '-음'이 결합한 후에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지 않아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12.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네 인심 한번 고약하구나.
- ②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 ③ 무엇보다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
- ④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 만난다.
- ⑤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명 몫의 일을 해낸다.

13.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와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선생님:** 음운의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축약, 원래 있던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음운의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을 탐구해 봅시다.

국밥[국뺨], 굳히다[구치다], 급행열차[그행닐차]

위 자료를 '국밥', 그리고 '굳히다, 급행열차'로 나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생:** ( ㉠ )를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럼, '굳히다'와 '급행열차'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생:** ( ㉡ )입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 |                          | ㉠ | ㉡  |
|--------------------------|---|----|
| ① 음운의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는지  |   | 축약 |
| ② 음운의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는지  |   | 교체 |
| ③ 음운의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었는지 |   | 탈락 |
| ④ 음운의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었는지 |   | 교체 |
| ⑤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는지  |   | 축약 |

1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시제는 말하는 때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때인 사건시와의 선후 관계를 따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뉘며,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부사어 등을 통해 실현된다. 다음 자료를 분석해 보자.

ㄱ. 창밖에는 눈이 내린다.  
ㄴ. 곧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ㄷ. 이것은 그가 내일 입을 옷이다.  
ㄹ. 내가 만든 빵을 형이 맛있게 먹더라.

- ① ㄱ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 ②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 ③ ㄴ과 ㄷ 모두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④ ㄷ과 ㄹ 모두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⑤ ㄱ, ㄴ, ㄷ 모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르다<sup>1</sup>** ㉠

【...을 ...에】 【...을 ...으로】

① 풀칠한 종이나 헝겊 따위를 다른 물건의 표면에 고루 붙이다.  
 ¶ 아이들 방을 예쁜 벽지로 발랐다.

② 차지게 이긴 흙 따위를 다른 물체의 표면에 고르게 덧 붙이다.  
 ¶ 흙을 벽에 바르다.

**바르다<sup>2</sup>** ㉡

① 걸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다.  
 ¶ 길이 바르다.

②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 지 아니하고 들어맞다.  
 ¶ 그는 인사성이 바른 사람이다.

- ① '바르다<sup>1</sup>'과 '바르다<sup>2</sup>'는 사전에 각각 다른 표제어로 등재되는 동음이의어이다.
- ② '바르다<sup>1</sup>'과 '바르다<sup>2</sup>'는 모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다의어이다.
- ③ '바르다<sup>1</sup>'은 '바르다<sup>2</sup>'와 달리 주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④ '바르다<sup>1</sup>'은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고, '바르다<sup>2</sup>'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 ⑤ '바르다<sup>2</sup>' ㉠의 예로 '마음가짐이 바르다.'를 추가할 수 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구렁에 서 있는 나무 우뚝하기도 하구나  
**풍상(風霜)**을 실컷 겪고 **독야청청(獨也靑靑)** 하구나  
 저근덧 **베지** 말고 두면 **도량재(棟梁材)**\* 되겠구나  
 <제1수(소나무[松])>

꼬리치고 휘파람 불며 기염(氣焰)\*도 **황홀** 하구나  
 이 뒤편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나니  
 진실로 네 잠깐 떠나면 **호리종횡(狐狸縱橫)**\*하겠구나  
 <제11수(호랑이[虎])>

㉠ 오리마 적표마\*들이 관단 노태\*와 같겠느냐  
 바람에 슬피 울며 네 굽을 허위치니  
 아무리 **천리지(千里志)**\* 있는들 알 이 없어 서러워라  
 <제15수(말[馬])>  
 - 권섭, 「십육영(十六詠)」 -

\*도량재: 기둥과 들보로 쓸 만한 재목. 한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를 이르기드 함.  
 \*기염: 불꽃처럼 대단한 기세.  
 \*호리종횡: 여우와 살쥬가 이리저리 날뛰. 여우와 살쥬는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함.  
 \*오리마 적표마: 오리마는 온몸의 털이 검은 말, 적표마는 붉은색을 가진 말.  
 \*관단 노태: 관단과 노태로 모두 걸음이 느린 말을 의미함.  
 \*천리지: 천리를 달리고자 하는 뜻.

(나)

북방 이십여 주에 경성이 문호인데  
 군사 백성 다스리기를 나에게 맡기시니  
 망극한 임금의 은혜 갚을 길이 어렵구나  
 ㉠ 서생의 일은 글쓰기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로다  
 임금께 절하고 칼을 쥐고 돌아서니  
 만 리 밖 국경에 내 한 몸 다 잊었다  
 흥인문 내달아 녹양평에 말 갈아타고  
 은하수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이나  
 회양 옛 사실\* 소문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은 무슨 죄인가  
 높고 험한 철령을 험하던 말 전혀 마오  
 세상살이에 비하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서울이 어디요 대궐이 가렸도다  
 안면 북쪽은 저쪽에 오랑캐 땅인데  
 오랑캐를 정벌하여 천 리 밖 몰아내니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 초목이 다 알도다  
 용흥강 건너와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낙민루에 올라앉아  
 옥저\*의 산하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년의 풍패\*에 상서로운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함관령 저문 날에 말은 어찌 병들었는가  
 ㉡ 모래바람 자욱한데 갈 길이 멀었구나  
 흥원 옛 고을의 천관도를 바라보고  
 대문령 넘어서 청해진에 들어오니  
 함경도의 요해지요 남북의 요충지라  
 충신과 정예 병사 무기를 늘어놓고  
 강한 활과 쇠뇌로 요충지를 지키는 듯  
 태평세월 백 년 동안 전쟁을 잊으니  
 철통같은 방어를 일러 무엇하리오  
 - 조우인, 「출새곡(出塞曲)」 -

\* 회양 옛 사실: 중국 한나라 무제(武帝) 때 급장유(汲長孺)가 회양 태수로 선정을 베풀었던 일.  
 \* 적객: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여기서는 임금 걸을 떠나 경성 판관으로 부임하는 자신의 신세를 말함.  
 \* 옥저: 함경도 함흥 일대에 위치했던 고대 국가.  
 \* 풍패: 천 년 전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고향에 빗대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을 가리킴.

(다)

태안사 가는 길에 물이, 보성강 물이 있습니다. 그 물길이 끝나는 지점이 태안사 들어가는 입구지요. 아닙니다, 물길은 끝나지 않고 다만 태안사 들어가는 입구가 그 물길의 중간에 나 있을 따름이지요. ㉠ 물길이 끝났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곧이어 숲이, 숲길이 시작될 테니까요.

여름 숲도 좋지만 겨울 숲은 또 나름대로 외로워서 좋습니다. 높아서 좋습니다. 야위어서 좋습니다. 여름 숲의 무성함, 풍성함, 윤택함에 한동안 외로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을 때는 외롭지 않아서 좋았고 외로울 때는 또 외로워서 좋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눈이 안 내리는 겨울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외로운 나무 끝에 펼쳐져 있습니다.  
 (중략)

[A]

[B]

거기에서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절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을 고양이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빙긋 웃자 노인의 얼굴이 한순간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소년의 얼굴을 가졌더군요. 아닙니다. 아기의 얼굴이었습니다. 절 사람들이 싫어하는 도둑고양이를 아기 얼굴을 가진 태안사 불목하니\* 그 노인이 혼자 숨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다람쥐처럼 어딘가로 숨어 버리는 그를 보러나는 태안사에 가곤 합니다. 고양이, 해탈이는 잘 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절 사람들은 노인을 이 처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그를 보면 바짝 반가워하는데도 그는 반가운 내색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그와 헤어지는 게 못내 섭섭해 작별 인사가 길어지는데도 그는 그저 가라고 손짓 한번 해 주고 그만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했는데 이제 그조차 익숙해졌습니다.

태안사 가는 길은 참 좋습니다. 물이 있고 곧이어 숲이 있고 해탈이가 있고 다람쥐보다 더 빠르게 달릴 줄 아는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와 어떤 특별한 말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는 내 속의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것도 모를 테지요.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 커다란 위로가 되고 부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또한 누군가의 가슴속에 들어가 위로가 되고 부처가 될 수는 없을까요. 좀 더 가난해지고 좀 더 외로워지면 그럴 수 있을는지요. 하기사 태안사의 그는 가난과 외로움조차도 스스로 느끼지 않는 그저 '그'일 따름이었습니다. ㉠ 가난과 외로움조차도 때로는 거추장스런 장신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 공선옥, 「태안사 가는 길에서」 -

\* 불목하니: 절에서 밤을 짓고 물을 길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1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시간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1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에는 모두 자연의 섭리에 담긴 가치가 나타난다.
- ② [A]와 [B]에는 모두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나타난다.
- ③ [A]에는 이상적 세계를 동경하는 삶이, [B]에는 자연에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 ④ [A]에는 자연을 보며 떠올린 삶의 고단함이, [B]에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 ⑤ [A]에는 자연물에서 연상된 대상에 대한 경외감이, [B]에는 자연을 거닐며 느끼는 쓸쓸함이 나타난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권섭의 「십육영(十六詠)」은 열여섯 개의 중심 소재를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가)의 각 수의 초장과 중장에는 소재로 쓰인 대상의 특성이나 상징적 의미가 강조되어 있고, 종장에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되어 있다.

- ① <제1수>에서 '풍상'을 이겨낸 소나무를 '독야청청'한 모습으로 그리며 소나무의 지조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제1수>에서 '베지' 않으면 '동량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인제가 되기 위해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 것이군.
- ③ <제11수>에서 호랑이의 기세를 '황홀'하다고 표현하며 호랑이의 위엄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군.
- ④ <제11수>에서 호랑이가 사라지면 '호리중형'할 것이라고 한 것은 소인배들이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군.
- ⑤ <제15수>에서 '천리지'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한 것은 인제가 뜻을 펼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낸 것이군.

19.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감회, 그 여정이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 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나)에는 화자가 부임지인 경성으로 가는 도중에 보게 된 변방의 경치와 회포 등이 드러나며, (다)에는 글쓴이가 태안사를 다녀온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드러난다.

- ① (나): 화자는 경성으로 떠나면서 관원의 임무를 맡게 된 것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고 있군.
- ② (나): 화자는 낙민투에 올라 산하를 둘러보며 자연에서 느끼는 기운에 감탄하고 있군.
- ③ (나): 화자는 청해진에서 전쟁이 없어 오랑캐를 방어하는 일을 있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군.
- ④ (다): 글쓴이는 태안사에서 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노인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군.
- ⑤ (다): 글쓴이는 태안사에서 만난 노인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있군.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오리마와 적표마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가 자신이 변방의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모래바람으로 인해 부임지로 가는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물길에 끝나더라도 숲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가난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던 노인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다. 가장 일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이며, 인식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 한 예로, 각 인식 주체는 서로 다른 가치 및 가치 범위를 가지며, 이러한 신체적 지각의 차이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각기 달라진다.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 예를 들어 연속된 시간을 시, 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일상 언어는 연속된 세계를 분절하여 인식하게 만든다.

그런데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은 ㉠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각각의 인식들에 따라 저마다의 얼굴, 즉 각각의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회화 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의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의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현대회화에도 영향을 ㉡ 끼쳤으며,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회화의 존재적 특징은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다. 과학은 존재면이 비교적 일의적이며,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그 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낸다. 예를 들어 생물학은 종, 개체, 기관, 세포, 유전자 등 무수한 면들을 드러내나, 이 면들은 넓게 보면 같은 면의 객관적 심층이다. 그러나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현대회화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가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의 실제

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 전통회화와 달리 ㉣ 현대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해 나간 것이다. 이러한 현대회화의 추상성은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회화는 실제의 재현에서 더욱 ㉣ 떨어져, 실체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내면은 상상의 영역이기에, 전통회화와 달리 현대회화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그러나 현대회화의 추상성에 대해 실재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의 경험에서 ㉣ 비롯되며, 내면의 추상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재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준다.

(나)

회화는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낸 가시적 존재지만,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듯 회화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갖는다.

전통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목했다. 이에 반해 현대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화가의 비가시적 내면을 드러내는 데 치중한다. 현대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서, 회화 속에서 객관적 실재는 주관화된다. 현대회화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로 대칭을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해 내고자 했다.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회화뿐 아니라 음악에서도 나타난다. 음악에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이며,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인 배열을 ㉣ 따른다. 이렇게 음악도 일상 현실과 거리를 두며 그 정체성을 확보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의 흐름에 대항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도 있었다.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루솔로는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 대상으로 삼아,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다. 작곡가 바레르는 분절된 몇 개의 음만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사이렌이 음과 음 사이의 분절되지 않은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했다. 또한 작곡가 셰페르는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음 등을 ‘음향 오브제’로 활용하는 ‘구체음악’을 창시하기도 하였다.

게르노트 비메는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확장된 미학’이라 일컬었다. 비메는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기존의 미학을 비판하며,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인식 주체가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나)는 인식의 한계가 예술 이해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현대회화의 추상성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나)는 회화가 비가시적 내면을 드러내는 원리를 분석하고 있다.
- ③ (가)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화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을, (나)는 예술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인간의 의식 수준의 성장에 따른 현실 세계의 변화 양상을, (나)는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가는 예술의 흐름을 언급하고 있다.
- ⑤ (가)는 현대회화가 세계를 추상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나)는 현실 세계에 의해 회화와 음악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를 밝히고 있다.

22. (가)를 바탕으로 존재면과 관련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회화 작품을 함께 감상하더라도 각 감상자가 지닌 인식들에 따라 서로 다른 존재면을 인식하게 될 수 있겠구나.
- ② 새로 개발된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상 언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언어로 지각되는 존재면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 ③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회화에 나타난 현실 세계의 존재면이 추상적 방향으로 변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겠구나.
- ④ 개개의 과학 학문은 하나의 존재면이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존재면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학문의 심층이 드러나게 되겠구나.
- ⑤ 입체주의 화가의 회화에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과 가능 세계의 존재면이 수평적으로 혼재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23. (가)와 (나)를 바탕으로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 ② ㉠과 ㉡은 모두 현실 세계의 사실적 재현을 통해 화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데 치중했다.
- ③ ㉠은 ㉡과 달리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준다.
- ④ ㉡은 ㉠과 달리 가시적 속성과 비가시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독특한 존재 방식을 취한다.
- ⑤ ㉡은 ㉠과 달리 현실 세계의 객관적 외면을 의도적으로 변형 시킴으로써 현실 세계의 얼굴을 다양하게 드러낸다.

24. (가), (나)와 관련지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최근 한 의과 대학에서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적 표현주의 작품인 『키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 회화 속 남녀의 의상에 한 사람의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순차적 세포분열 과정이 과장된 크기와 다양한 색으로 변형되어 그려져 있음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클림트가 당시 현미경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생물학적 탐구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 ① (가):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세포분열 과정을 밝혀낸 생물학적 지식이 드러내는 현실 세계는 클림트의 회화에 비해 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 현미경 기술의 발전으로 세포분열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식 주체가 지닌 조건이 달라져 현실 세계가 새롭게 지각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가): 클림트의 회화에서 세포분열 과정이 현실과 다르게 변형되어 그려진 것에서 실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화하는 현대회화의 추상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나): 클림트의 회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가시적이지만 세포분열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탐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가시적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 클림트의 회화에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화가의 관심이 드러난다고 본 연구 결과는 회화가 화가의 관념적 세계를 표현한 결과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25. ㉢와 관련하여 (나)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회화 화가들은 일상의 비대칭성과 혼란스러움을 조작하여 그린 예술 작품을 통해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추상화하고자 했다.
- ② 루솔로는 일상의 기계 소음에서 음악에 사용되는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함으로써 예술과 현실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다.
- ③ 바레즈는 일반 악기와 달리 두 음 사이의 무한한 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일상 현실을 예술로 표현하고자 했다.
- ④ 세페르는 기존 음악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소리를 음향 오브제로 활용하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창시하였다.
- ⑤ 게르노트 비메는 미적 대상의 창작과 수용에 따르는 미적 경험이 일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26.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치환(置換)될
- ② ㉡: 부과(賦課)했으며
- ③ ㉢: 심화(深化)되어
- ④ ㉣: 시작(始作)되며
- ⑤ ㉤: 추종(追從)한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메야,  
복(福)이 따로 있다.  
뚝심 세고  
부지런하면 사는거지,  
하늘이 물을 대는 천수답(天水畓)\*  
그 논외 벼이삭.

니 말이 정말이데.

엄침구나\*  
내 새끼야,  
팔자가 따로 있다  
본심 가지고  
부지런하면 사는거지.

어메야,  
누군 한 평생  
만년을 사나.  
허둥거리지 않고  
계 길로 가면 그만이지.

오냐,  
내 새끼야,  
니 말이 엄침구나.  
잘 살고 못 살아가 어딴노.  
계 길 가면 그만이지.  
수런거리는 감잎 사이로  
별뿔기 빛나는 밤하늘.  
그 하늘의 깊이.

- 박목월, 「천수답(天水畓)」 -

\*천수답: 빗물에 의하여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  
\*엄침구나: '대견하구나'의 경상도 방언.

(나)

찌그만 것이  
노랑게 노랑게  
전력을 다해 셋노랑게 피어 있다

[A]

아무 곳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B]

바위 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터를 잡고

[C]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열심히 한 댕새

[D]

세상에 그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랑게 노랑게만 피는 꽃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E]

찌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서도 쥘 수 없다  
아 민들레!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한 댕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

- 이형기, 「민들레꽃」 -

2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③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28.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작지만 온 힘을 다해 선명한 빛깔로 피어 있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B]에는 다른 공간은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한계 안에서 홀로 애쓰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C]에는 씨가 뿌려진 비좁은 곳을 자신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터를 잡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④ [D]에는 강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E]에는 꽃을 피웠지만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위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 삶에 대한 가치 있는 태도가 담겨 있다. (가)에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열악한 농토를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 여기며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과 그에 대한 지지가 드러나 있다. (나)에는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과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에서 '천수답'을 일구는 삶을 '계 길'이라고 여기는 것은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을 드러낸 것이겠군.
② (가)에서 '니 말이 정말이데', '니 말이 엄침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메'가 '내 새끼'에게 보내는 지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③ (가)에서 '누군 한 평생 / 만년을 사'냐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④ (나)에서 '그 크기는 / 어떤 자로서도 쥘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⑤ (나)에서 '댕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는 모습을 '헛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낸 것이겠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매 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한다.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어도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며,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편 ㉡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률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를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다. 또한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고,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은 할 수 없다.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의 예로는, 징계해고로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징계휴직으로서의 효력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징계휴직으로 전환하여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요건을 추후에 보충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된다. 따라서 해당 법률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수령자는 해당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다.
- ②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 ③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시켰더라도 어떤 사유가 있어 그 효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 ④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해당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⑤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1.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효력요건이 불충분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 ② ㉡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③ ㉠과 ㉡은 모두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다.
- ④ ㉡은 ㉠과 달리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한다.
- ⑤ ㉡은 ㉠과 달리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3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갑은 자신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태로 유언증서를 남겼다. 하지만 갑의 사망 후 이 유언증서는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당 유언증서가 다른 형태의 유언증서인 ㉡ '자필서명에 의한 유언'의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갑이 자신의 유언증서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이러한 형태의 유언증서를 남겼을 것이라 보아, '자필서명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① ㉠가 무효가 되면서 ㉡의 성립요건도 불충분하게 된 것이군.
- ② ㉠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는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군.
- ③ ㉠의 부족한 효력요건이 추후에 보충되어 ㉡가 유효하게 된 것이군.
- ④ ㉠는 ㉡로 바뀌면서 무효 원인이 소멸되어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되는군.
- ⑤ ㉠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았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군.

33. ㉗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률행위를 추진할 때 추인의 조건을 갖춘 상태라면 이를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② 추인으로 인해 무효행위의 유효요건이 보충되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어서 소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 추인을 통해 유효하게 된 시점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법률상으로 정해 놓은 것이어서 추인을 통해 유효한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디지털 이미지에 저작권자나 배급자의 서명, 마크 등의 특정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삽입된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하며,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의 무단 배포, 무단 복사 등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원본 이미지의 훼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이미지의 공간 영역 활용 방식과 주파수 영역 활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간 영역 활용 방식으로는 LSB(Least Significant Bit) 치환 방법이 있다. 흑백 원본 이미지에 흑백 워터마크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그 원리를 살펴보자. 흑백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픽셀<sup>\*</sup>의 색상은 밝기에 따라 0~255까지의 정숫값을 가지는데 0은 검은색, 255는 흰색을 나타낸다. 이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8비트<sup>\*\*</sup>로 나타내면 각각의 픽셀은 검은색인 부터 흰색인 까지 총 256가지의 값 중 하나를 갖게 되며, 그 숫자가 클수록 흰색에 가깝다. 이때 각 픽셀은 8비트의 데이터 중 왼쪽에 위치하는 상위 비트가 바뀔수록 그에 해당하는 정숫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 쉽고, 오른쪽 하위 비트가 바뀔수록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LSB는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오른쪽 마지막 최하위 비트를 ㉠ 말한다. LSB 치환 과정에서는 원본 이미지에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LSB에 하나씩 나누어 숨긴다.

이때 원본 이미지 각 픽셀의 8개의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8개가 필요하다. 결국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적다면 워터마크 이미지의 데이터 일부는 삽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원본 이미지에 시각적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으며,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에서

[A]

LSB만 변경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색상이나 감도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의 LSB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워터마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파수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DCT는 이미지 데이터를 공간값에서 주파수값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미지에 DCT를 적용하면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적은 픽셀은 낮은 주파수값으로, 경계선 등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큰 픽셀은 높은 주파수값으로 나타난다. 원본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의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각 픽셀의 색상값을 DCT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주파수값 분포표를 얻을 수 있다. 주파수값 분포표에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값,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값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의 색상값을 주파수값 형태로 삽입한 후 다시 역변환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어느 주파수값에 삽입하던 워터마크가 원본 이미지의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분산된 형태로 삽입된다.

인간의 시각은 낮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에는 민감하나 높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값이 분포하는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JPEG와 같은 방식의 압축 이미지 알고리즘은 높은 주파수 성분의 요소를 제거하여 이미지를 압축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값이 분포하는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이미지 압축과 같은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삭제될 수 있다. 그래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때는 낮은 주파수값이 분포하는 영역과 높은 주파수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특정 주파수값 영역을 중심으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한다.

이 방법은 이미지의 왜곡이 적어 시각적으로 원본 이미지와의 차이를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삽입할 데이터를 이미지 영역에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변형의 과정을 거쳐도 LSB 치환 방법에 비해 워터마크가 상대적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터 삽입이 가능한 주파수값의 개수가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LSB 치환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픽셀의 개수가 같은 이미지라 하더라도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지에 따라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 픽셀: 작은 점의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화면의 작은 점 각각을 이르는 말.  
 \*\* 비트: 2진 기수법 표기의 기본 단위. 2진 기수법에서는 모든 수를 0과 1로만 표기하는데 이 0 또는 1이 각각 하나의 비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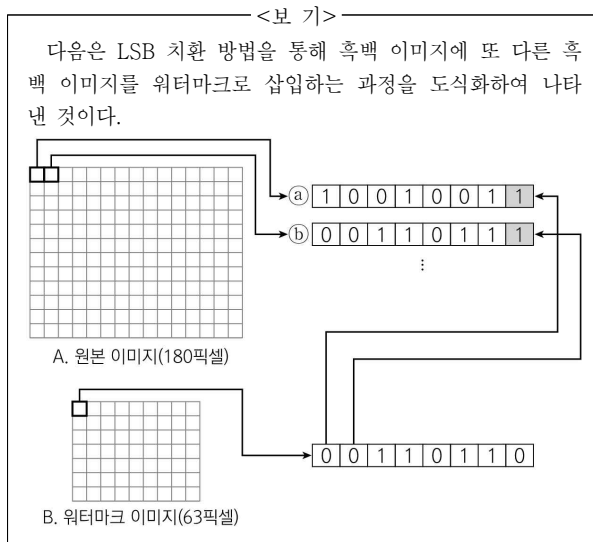
34.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디지털 워터마크의 용도는 무엇인가?
- ②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③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의 전망은 어떠한가?
- ④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 ⑤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5.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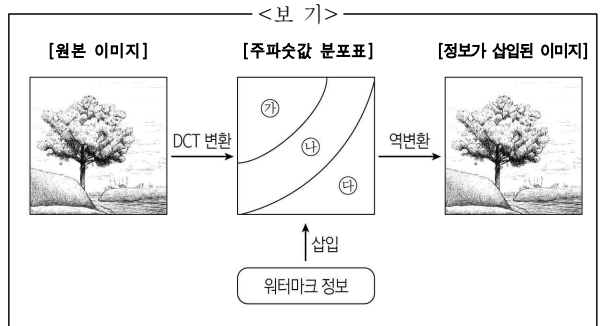
- ① LSB 치환 방법은 D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워터마크가 제거되지 않는다.
- ② LSB 치환 방법은 D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동일한 원본 이미지에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
- ③ DC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블록 단위로 변환을 수행해야 한다.
- ④ JPEG 압축 방식은 이미지에서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큰 픽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⑤ DCT를 이용하는 방법은 원본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36.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는 180이다.
- ② B의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비트는 A에 삽입할 수 없다.
- ③ B의 픽셀 수가 더 많아지면 A의 시각적인 변화는 줄어든다.
- ④ a 픽셀의 색상이 b 픽셀의 색상에 비해 더 흰색에 가깝다.
- ⑤ a 픽셀과 b 픽셀에 데이터가 삽입되면 LSB가 모두 1에서 0으로 바뀌게 된다.

37.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보다 원본 이미지에서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더 큰 부분이겠군.
- ② ㉠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에 삽입하는 것보다 역변환 후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더 크겠군.
- ③ ㉣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JPEG와 같은 방식의 압축에 의해 더 쉽게 제거되겠군.
- ④ ㉣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역변환 후 전체 이미지에 더 고르게 분산되겠군.
- ⑤ ㉠, ㉡, ㉣ 영역은 원본 이미지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겠군.

38. 문맥상 ㉠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북극은 지구 자전축의 북쪽 끝을 말한다.
- ② 선생님은 그 작가에 대해 항상 좋게 말했다.
- ③ 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 ④ 친구에게 동생이 오면 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 ⑤ 그녀에게 약속 장소를 말하지 않은 것이 생각난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봉장 원이정이 내달아 양주 자사 양운을 맞아 싸우다가 사로잡힌 바 되니, 또 도원수 양경이 내달아 적을 상대하더니 물러나며 두어 번 싸우는 척하다가 실수하여 사로잡히는 체하고 적진으로 들어갔다. 황제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 경황실색하며 이렇게 물었다.

“하신(下臣) 중 누가 대적하리요?”

좌우의 모두가 일제히 아뢰었다.

“이제 형세가 곤궁하오니 마땅히 항복하기만 감지 못하옵습니다.”

천자가 크게 분하여 대답하지 않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누가 능히 흉적을 소멸하고 짐의 분을 덜겠는가?”

그러나 하신의 모든 무리가 거의 다 양경의 세력에 들었는 지라 누가 대적하겠는가? 급함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다.

태자비가 이 시랑 댁에서 조정에서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며 밤낮으로 국가 소식을 탐지하였는데 하루는 피난하는 백성이 길을 막고 울었다. 태자비가 소애를 시켜 위로하며 백성에게 물으니 백성이 말하기를,

“양경의 동족(同族)인 황주, 익주, 서주, 강주, 성주, 형주 도읍이 다 반역하여 **조정을 침노**하였는데, 천자께서 몸소 공격하시다가 도적에게 패하여 거의 죽게 되셨으니 백성이 당하지 못하여 피난하나다.”

태자비가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전쟁터에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신하가 없고 양경 같은 소인이 있어 백성을 다 없애지게 하고 임금을 해치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황상이 이제 친행(親行)하신다 하니 그 흉적의 세력을 어찌 당하리오. **내 비록 여자**이나 한번 소리쳐 역적을 깨뜨리고 백성을 건지며 **임금을 구원**하리라.”

(중략)

태자비가 분기충천하여 천조검을 높이 들고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도적이기에 성질이 역세게 고집스럽고 사납기가 그지없이 우리 황상을 이리도 꺾박하는가? 나는 성제(聖帝)의 명을 받아 주 씨 강산을 구하러 왔으니 나를 대적할 이 있거든 모두 나와 승부를 겨루자.”

하는 소리 진동하니 양주 자사 양운이 소리에 응답하여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A] “이제 주 씨의 부조(父祖)가 덕망을 잃어 천하 백성이 도탄에 들어 눈을 뜨지 못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주 씨를 들어 내쳐서 만민을 건지고자 하니,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시절 돌아감을 알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대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가?”

태자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B] “자고로 신하는 그 위를 범하지 못하니, 너희가 주 씨의 녹을 먹었으나 임금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이리 하느냐. 옥체를 빌린 임금의 마음은 하해와 같으니 어찌 하늘의 벌이 없겠는가? 급히 항복하면 죄를 용서하려니와, 끝내 하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득히 살아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리니 급히 결단하라.”

양운이 노하여 달려들거늘, 태자비가 맞아 싸워 두 합에 태자비의 칼이 번뜩하더니 양주 자사 양운의 머리를 베어 칼 끝에 꿰어 들고 재주를 자랑하며 쳐들어갔다. 적진에서 양운의 죽음을 보고 또 한 장수가 내닫거늘,

태자비가 바라보니 신장이 구 척이고 얼굴은 수목을 갈아 뿌린 듯하고 눈을 커서 세 치 닷 풀이나 되었다. 창검이 엄숙하여 청천(靑天)의 번개 같으니 이는 황주 자사였다.

태자비가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이런 도적이 시정에 있으나 무엇에 쓸 수 있겠는가? 너와 더불어 대적함이 욕되나 위국충신이 있는 고로 마지못해 다투니 급히 결단하라.”

황주 자사가 크게 노하여 달려들어 태자비와 싸우기를 20여 합이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때에 천자가 대상(臺上)에서 바라보니 난데없는 장군이 필마(匹馬)로 들어와 적장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의아한 중에 안심되어 말씀하시기를,

“밝으신 하늘이 주 씨 강산을 보전케 하시도다.”

이어 기뻐하며 일월기(日月旗)를 둘러 접응하였다.

태자비가 황주 자사와 싸우기를 30여 합에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문득 태자비가 입은 전포(戰袍)의 용두(龍頭)에서 청황룡이 었드려 있다가 붉은 기운을 토하니, 삼태호총마가 귀를 세우는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여 양진을 분별하지 못

하였다. 그런데 문득 태자비의 몸이 공중에 솟구치더니 칼을 들어 황주 자사의 목을 베어 말 아래로 내리치니 누가 감히 당하리오. 태자비가 드디어 **모든 역적을 함몰**시키고 군사는 놓아 보내니, 적진에 잡혀있던 양경과 원이정의 몸이 살아와서 태자비를 보고 칭송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대국 도원수와 선봉장이나 재주가 없어 적진에 잡혀 죽게 되었더니 장군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전**하고 흉적을 격파하였으니 은혜 난망(難忘)이로소이다.”

태자비가 한 피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양경을 데리고 천자 계신 곳에 가서 옥도 자사의 머리를 올리니 천자가 크게 기뻐하시며 자리에서 내려와 태자비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었다.

“장군의 충성은 무엇보다도 크니 금수강산으로도 갚지 못하리라.”

태자비가 었드려 아뢰었다.

“폐하의 홍복(洪福)이라, 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천자가 매우 칭찬하자, 태자비가 다시 여쭈어 아뢰었다.

“이제 옥도 자사가 죽고 자리가 비었으니 었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여섯 자사를 정하여 각각 모든 병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에 천자가 이를 따랐다.

이어 태자비가 천자를 모시고 황성에 올라왔는데, 남쪽 성문 위에 천자가 전좌한 뒤, 태자비가 황상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또한 성 안에 옥도 자사의 남은 무리가 무수하오니 다시 성에 들어가 반적(叛賊)을 다 없앤 후 환궁하겠습니다.”

천자가 크게 놀라 그대로 윤택하시니, 태자비가 즉시 차환등을 호령하여, 양경과 원이정을 잡아들이라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 작자 미상, 「정각록」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③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인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공간을 환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원수 양경은 적과 싸우는 척하다 일부러 적진에 잡혀갔다.
- ② 하신의 무리들은 전장의 형세를 이유로 천자의 항복을 만류했다.
- ③ 태자비는 이 시랑 덕에서 지내며 나라의 상황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④ 천자는 전장에 말을 타고 나타난 장군이 태자비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 ⑤ 태자비는 천자에게 반적을 없앤 후 환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상대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A]는 [B]와 달리 실행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며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있다.
- ④ [A]는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B]는 역사적 사실에 빗대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말하며, [B]는 상대가 지켜야 할 태도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각록」은 여성 영웅 소설로, 주인공 정 소저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태자비가 된 정 소저는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반역 세력을 숙청함으로써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수호하려고 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여성을 영웅적 인물로 설정하여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 내고 있다.

- ① 태자비가 양경과 원이정의 ‘목숨을 보전’해 주는 것에서, 정 소저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② 태자비가 ‘조정을 침노’한 반역 무리를 응징하려고 하는 것에서, 정 소저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태자비가 전장에 나가 ‘모든 역적을 함몰시’킨 것에서, 정 소저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④ 태자비가 ‘내 비록 여자이’지만 적진에 나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정 소저는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성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태자비가 ‘임금을 구원하’기 위해 전장에 직접 나가 싸우는 것에서, 정 소저는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한다고 볼 수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녀석에게 고향을 배워 주겠노라 약속해 놓고도 막상 그것을 생각해 보려 하니 막연하기만 했다. 생각의 실마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발걸음을 한 일이 없는 동백골이었다. 하나 같이 기억이 희미했다. 제법 감동 같은 걸 싣고 떠오르는 일이 없었다. 생각난 것은 내 배앓이의 시초가 됐던 학교 잡부금과 피배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간밤에 이미 확인이 끝난 일이었다. 다른 것을 찾아내야 했다. 훈이 녀석을 위해서도 좀 더 행복스런 고향을 찾아내야 했다. 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그 바다와 상관하여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동백골에서도 바다는 멀지 않았다. 바닷가 산비탈에 밭농사를 짓고 있어 그곳 사람들도 바다에는 무척들 익숙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바다가 어떤 식으로 내 어린 시절과 상관되고 있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게 뿌연게 멀기만 했다. 아름아름 어떤 기억이 떠오를 듯하다가도 ㉠ 화산 마을 앞 넓은 바다가 눈앞으로 다가오면 그것에 가려 기억 속의 것은 금세 희미하게 멀어져 버리곤 했다.

그럭저럭하다가 나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몸을 기대고 누워 버렸다. 하지만 누워서도 다시 생각을 계속했다. 다행히 눈앞에서 나를 간섭해 오는 바다가 없으니 이젠 생각이 훨씬 쉬운 것 같았다. ㉡ 동백골 앞바다가 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윽고 한 가지 행복스런 정경이 멀리서부터 천천히 너리 속으로 비취 들어왔다. 그것은 참으로 **행복스런 추억**이었다.

바다가 있었다. 여름의 바다는 유난히 넓고 푸르게 반짝거렸다. 바다에 발뿌리를 내려 뺨은 산줄기는 어디라 할 것 없이 울창한 녹음으로 푸르게 뒤덮여 있었다. 산비탈은 대부분 밭갈이가 되어 있고, 고구마나 수수나 콩이나 목화 같은 것을 심은 여름 밭가리 가운데는 다섯 마지기 남짓한 우리 집 밭뚝기도 끼여 있었다. 어머니는 여름 한철을 대개 그 다섯 마지기 여름 밭갈이로 보냈다. 아침만 되면 어머니는 김매기를 나가면서 밭머리로 나를 데려다 놓았다. 밭머리에는 푸나무꾼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쉬어 가는 지게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엔 옛날부터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누워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 인적에 씻겨 운이 돌을 만큼 반들거리는 무덤가의 잔디밭 지게터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지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안 일이지만, 나는 내 기억의 한참 전부터도 여름이면 늘상 그 밭머리의 지게터에서 하루해를 지내곤 했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머니가 나를 업어다 쇠고배처럼 허리에 띠를 감아 매어 놓곤 했었다. 걸핏하면 아무 데나 기어가 흙덩이를 집어 먹고 나무 가지 같은 데에 얼굴을 자주 활켜 댔기 때문이라고. 어떤 때 사람들이 지게터를 지나가다 보면 나는 온몸에 오줌과 똥을 짓이겨 바른 채 배가 고파 울고 있거나, 울음을 울다올다 제풀에 지쳐더운 띄약별 아래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았다고.

**[중략 줄거리]** ‘나’의 고향 이야기를 들은 훈이는 ‘나’에게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당황한 ‘나’는 그날 밤 심한 배앓이를 한다. 다음날 ‘나’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기분을 느끼며 기태에게 이제 화산 마을에서 떠나 서울로 가겠다고 말한다.

“악마구리 속이라도 할 수 없지. 나를 그토록 **폐허로 만든** 곳이 서울이라면 내 병도 아마 그 서울 쪽에 뿌리가 있을 테니까. 뿌리를 뽑고 싶으면 싫더라도 그 뿌리가 내려진 곳으로 돌아가는 게 정직한 태도 태구.”

“아서..... 자네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난 아무래도 자넨 다시 서울로는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집이 혹 불편해져서 그런다면 더 할 말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서울 보단 차라리 동백골이나 한번 들어가 지내보는 게 어떨까도 싶고.....”

“동백골 쪽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 그것도 뭐 새삼스런 기대가 생겨서 그랬던 건 아니구. 기대 같은 걸로

말한다면 그건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에서였다고 할까. 난 사실 지금도 그 동백골이 어떤 곳이었던가를 짱그리 잊고 있던 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 너무 오래 발을 끌고 지나다 보니 어릴 적 일들이 **터무니없는 요술을 부리려 들더구만**. 그럴듯한 요술로 나를 마구 속이려 든단 말일세. 내 눈으로 다시 가서 사실을 확인해 두고 싶기도 했어. 더 이상 내게 요술을 부릴 수 없도록. 하지만 아직도 내게는 용기가 훨씬 모자란 것 같아. 고향이 어떻게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그 현실을 현실대로 정직하게 맞부딪쳐** 들어갈 수 있는 내 용기가 말일세. 당분간은 그 동백골 한 곳이라도 나를 속이게 놔두는 것이 나를 듯싶더구만. 그래야 또 자네 말대로 그 악마구리 속 같은 서울 살이를 버터 나가기가 나을 듯싶기도 하고.....”

“서울이란 할 수가 없군. 자넨 이제 진짜 서울 사람이 다 되어 버린 것 같다니까.....”

기태는 아직도 끈이들리지 않는 듯 허허 웃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아무 새로운 느낌도 없었다. 어이없어하는 기태를 향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뭐 서울에 무슨 새삼스런 기대가 있어선 물론 아니야. 그게 이룰테면 유일하게 정직한 나의 삶이라는 것이겠고, 서울은 실상 그런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터전인 셈이니까.....**”

“병은 고칠 작정이 아니군.”

기태는 그제서야 겨우 기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가 비로소 정색을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자 나는 마지막으로 좀 더 지껄었다.

“할 수 없는 일이지. 이제 와서 알게 된 일이지만, 그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 살아오느라고 이 물골로 폐허가 다 되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는 어렵도 없는 일이야. 난 단념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그런 걸 불편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 나에겐 그 밖에 남은 게 없거든.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많은 증세들 때문에, 그것을 건강 삼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구. 고칠 수도 없고 굳이 고치려고 하지도 않겠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제 살아 있는 **내 진짜 얼굴**이거든. 그렇다면 난 다시 서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새삼스럽게 두려워질 일도 아니겠고, 자 그럼.....”

- 이청준, 「귀향 연습」 -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동백골에 가지 않았다.
- ② '나'는 훈이에게 행복스러운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고민했다.
- ③ 어머니는 여름 한철을 대개 산비탈에 있는 밭을 가는 일로 보냈다.
- ④ 기태는 서울 살이를 버터 보겠다는 '나'의 선택을 지지했다.
- ⑤ 기태는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서울보다는 동백골에서 지내 보는 것을 권했다.

4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과 ㉡에서의 경험을 동일시하고 있다.
- ② ㉠을 바라보면서 ㉡에서의 '나'의 행동을 후회한다.
- ③ ㉠에서 벗어난 뒤 ㉡에 관한 '나'의 기억이 선명해진다.
- ④ ㉠을 떠나면서 ㉡에서 '나'가 생각했던 의문이 해소된다.
- ⑤ '나'는 ㉠에서의 일을 잊기 위해 ㉡에서의 일을 떠올린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귀향 연습」에서 '나'는 도시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다. '나'는 고향을 도시와 대립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고향을 행복했던 곳으로 이상화하며 고향에 관한 기억을 왜곡한다. 그런데 훈이와의 대화가 계기가 되어 '나'는 고향에 관한 생각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인식하고 서울행을 결정하면서 현실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 ① 서울에서의 생활을 '악마구리 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나'가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고향이 '나를 두렵게 하여' '정직하게 맞부딪칠' 용기가 모자란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고향에 대한 환상을 깨려한다고 볼 수 있군.
- ③ 동백골에서의 어린 시절 일들이 '터무니없는 요술을 부리려 들더'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고향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군.
- ④ 동백골은 '행복스런 추억'이 있는 공간으로, 서울은 '나를 그토록 폐허로 만든 곳'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아, '나'는 고향을 서울과 대립된 공간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군.
- ⑤ 서울을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진짜 얼굴'을 받아들여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현실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려 한다고 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